

그래픽 디자인과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차이

미디어학과 201721107 박성범

그래픽 디자인은 말 그대로 시각적인 요소를 설계하는 영역을 말한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역시 시각적인 요소를 설계하는 영역을 의미하지만, 여기에는 ‘소통’이 더해져 있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 그래픽 디자인보다 넓은 범위로, 소통을 위해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한다. 여기에는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사진이 포함될 수 있다. 그래픽 디자인은 보다 좁은 범위로, 시각적 요소를 조직하는 것 자체에 집중한다.

분야를 비교하는 것보다 그래픽 디자이너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 지 비교하는 것이 더욱 명확할 것 같다. 가령 BI를 디자인한다고 하면 그래픽 디자이너는 로고, 패키지 등에 사용될 컬러와 타이포그래피, 이미지, 공간을 구성할 것이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는 더 넓은 영역에서 BI 디자인의 총체적인 부분을 다룬다. 브랜드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정의하고, 사용자 경험을 고려해 디자인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UX디자인의 부분 집합으로 UI디자인이 속한 것처럼,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부분 집합으로 그래픽 디자인이 있다고 이해했다. 또 한편으로는 UX디자인과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교집합이 있어 보인다.

참고자료

이우녕,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길은?”, 디자인학교, 2013.

최태희, “시각 디자인 관련 학과 이름은 왜 그렇게 다양한가?”, 월간디자인 2010년 3월호, 2010.

Cameron Chapman, “Visual Design vs. Graphic Design: What’s the Difference?”, The Hard Refresh, 2018.

Daleen Rabe, “What is Visual Communication Design?”, 2018.

하라 켄야, “디자인의 디자인”, 민병걸 역, 안그라픽스, 2017, 신유민, “Design of Design”, 2016에서 재인용.